

하나의 무대위 ‘3인 3색’ 발레공연

광주시립발레단 발레큐레이션

31일~4월 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시립발레단이 기획공연 발레살롱콘서트Ⅱ ‘단원안무전 Ballet Curation’ (발레 큐레이션)을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과 4월 1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선보인다.

발레살롱콘서트Ⅱ는 광주시립발레단 박경숙 예술감독의 비전 중 하나인 단원 안무전이다. 관객에게 다양한 발레공연을 보여주고 단원들의 기량 향상뿐만 아니라 잠재적 재능을 키워 지도자와 안무자를 양성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다.

이번 공연은 초청안무자 정형일의 발레 크리에이티브 대표의 ‘Two Feathers’ (투페더스), 단원안무자 노운정의 ‘Preview 2023’ (프리뷰 2023), 하승수의 ‘4 Basic Emotion’ (4 베이직 이모션) 총 3부로 구성됐다.

초청안무자인 정형일의 ‘Two Feath-



ers’은 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채워져 주목되는 무대 중 하나다.

‘Two Feathers’는 클래식 발레 작품 ‘백조의 호수’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집착과 배척에 초점을 맞춰 갈등의 상징인 두 본성의 대립과 다툼을

색의 대비를 통해 표현했다. 백조와 흑조가 융합된 독특한 안무구성을 통해 선악의 개념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선입견에 사로잡히거나 맹목적 집착을 보이는 인간의 모습과 움직임이 발레동작으로 표현된다. 컨템포러리 발레를 처음 접한 관객들도

어렵지 않게 관람 할 수 있는 작품으로 고전 발레 작품과 비교해보는 재미도 경험할 수 있다.

공연에서는 안무자와의 대화도 같이 구성해 극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3인 3색의 개성 넘치는 무대는 광주시립발레단이 엄선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움직임 창출로 컨템포러리발레의 묘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티켓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광주시립발레단 관계자는 “3인 3색의 개성 넘치는 무대는 광주시립발레단이 엄선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움직임 창출로 컨템포러리발레의 묘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발레단은 6월 24~25일 대한민국발레축제에 폐막공연으로 ‘돈키호테’를, 7월 14~15일 문화예술회관 재개관 기념으로 제134회 정기공연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모티브로 한 컨템포러리발레 ‘Divine’ (디바인)을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이나라 기자

전남관광 디카시 ‘웃음꽃 전님’



보길도 연가

차순원

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
바위에 새겨놓고
떠났던 노정객
배 띄워라 노 저어라
보길 석실에서 시 나온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참가작 모집

오는 13일까지 이메일 접수

광주문화재단은 전통문화관에서 전통예술분야 활성화와 시민문화향유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선보일 ‘토요상설공연’ 참가작품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토요상설공연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너털마당에서 진행되는 무대로 공모선정 공연 22회와 광주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단체)를 초청 기획공연 8회로 구성된다.

매월 첫째 주는 판소리·산조, 둘째 주는 국악창작, 셋째 주는 연희·무용 무대 공모 작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매주 토요일 무등산 일대를 전통 풍류와 가락으로 가득 채울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판소리·산조 등 분야별 개인 16명, 국악창작, 전통 연희 등 14개 단체다. 개인에게는 출연료 100만원, 단체에는 출연료 200만원이 지원된다.

단, 종교기관 소속단체나 학교 학위 취득 목적의 연주, 출연진 전체 중 30%가 야마추어 수강생으로 구성된 단체 등은 접수할 수 없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접수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제출서류는 공모신청서, 공연계획서, 공연실적자료 등이며 서식은 광주문화재단과 전통문화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이메일 (gcf_art@naver.com)접수만 가능하다. /이나라 기자

대한민국민화대전 작품 공모

학생·일반...상금 3,300만원

강진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민화 전문 국립 박물관 한국민화뮤지엄이 제9회 대한민국민화대전 참가 작품을 공모한다.

강진군 주최, 한국민화뮤지엄 주관이며 전통 문화유산인 민화의 계승·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국 최대 규모 민화 공모전으로 학생부(초·중등부/고등부), 일반부로 나뉘어 개최된다. 공모전에는 총 3,30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다.

학생부 접수는 5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일반부는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참가신청은 한국민화뮤지엄 홈페이지(minhwamuseum.com) 공모전 접수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 접수 후 작품을 발송하면 된다.

지난해 민화대전 학생부는 성인부 못지않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대거 출품되는 등 성황리에 치러졌다고 민화뮤지엄은 전했다. 일반부는 전국의 현대민화 작가들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국과 해외에서까지 작품이 접수됐다. /최진화 기자

원어로 만나는 프랑스 대표 뮤지컬...갈라 콘서트 ‘디오리지널’

16일부터 구리 등 투어

미켈란젤로 로콩테 내한

‘노트르담 드 파리’, ‘레 미제라블’부터 ‘로미오와 줄리엣’, ‘돈 주앙’까지...시적인 가사와 낭만적인 줄거리,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음악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 뮤지컬의 대표작들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갈라 콘서트가 열린다.

공연기획사 마스트엔터테인먼트는 프랑스 대표 뮤지컬 작품의 하이라이트를 현지 배우들의 노래와 연기로 만날 수 있는 ‘프렌치 뮤지컬 갈라 콘서트-디오리지널’을 오는 16일부터 구리, 서울, 대구에서 공연한다고 밝혔다. 16일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 공연을 시작으로 18~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21일 대구 계명아트센터에서 관객과 만난다.

‘프렌치 뮤지컬 갈라 콘서트’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제작자인 니콜라스 타라가 직접 제작한 공연으로, 세계에서 활약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마스트엔터테인먼트 제공

하고 있는 프랑스 뮤지컬 배우들과 20인조 오케스트라, 6인조 라이브 밴드의 연주로 프랑스 뮤지컬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무대다. 뮤지컬 ‘모차르트 오페라 록’의 주역으로

이름을 알린 배우 미켈란젤로 로콩테부터 지안마르코 스키타레티, 인젤로 델 베기오, 다미앙 사르그 등 프랑스 대표 뮤지컬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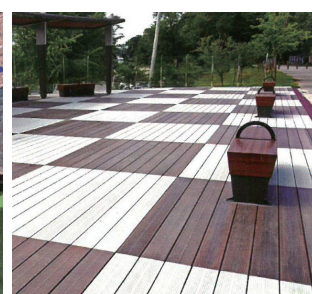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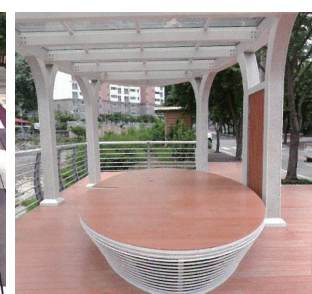
■ 합천 황매산 전망대



■ 목포 노을공원 공연장



■ 부여사비 창작지구



■ 인제 갯골전 정비사업

데크의 세대 교체!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에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 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사람과 자연의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충청남도 서북구 망향로 903-6 (오목리9)